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오픈 프로젝트 바이 로와정
Space Willing N Dealing Open Project by RohwaJeong

2019. 7. 12 ~ 8. 11

2019년 7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을 서촌지역에 위치한 작은 건물의 2층으로 옮겼다. 이번 전시공간은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방배동 카페골목을 거쳐 세 번째로 자리를 잡은 곳이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이전 소식을 전할 겸 공간 내부를 소개하는 오픈 프로젝트로서의 로와정 개인전이 2019년 7월 12일부터 시작되면서 이 공간이 정식으로 공개된다. 로와정 작가는 여러 가지 매개들-공간, 환경, 오브제 등-의 이항관계를 다루고 있는 듀오작가로서 이번 전시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공간의 내부와 외부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특정 공간을 매개, 주제 그리고 소재로 삼고 있다.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이면서도 사적 공간을 공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공적인 환경을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다.

이번 현장 설치 <dashed line>을 로와정 작가의 기존 작업과 비교해본다면, 2017년부터 진행 중인 영상 작업 <Still Life>시리즈가 적절할 것이다. 이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 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론을 선보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특정한 공간이 기존부터 지니고 있던 모기장 위에 <Still Life>라는 문구를 수를 놓듯 새겨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이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일종의 기호로 작동시킨 작품이다. 그리고 안과 밖, 그리고 그 사이의 모기장이라는 3개의 레이어를 중첩시키고 영상으로서 재현 가능한 소리와 움직임을 개입하게 하여 공간의 감각에 더해진 시간적 요소를 성공적으로 다룬다.

<dashed line>은 현장 설치로서 작가는 관객들이 특정 구조 안에서 공통적인 감각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선 형식의 구조가 이어지며 건물의 내부와 외부로 휘감는다. 이 구조물은 창문, 현관문 등 외부로 열리는 기능과 역할을 지닌 문에 개입하고 이것의 차단 기능을 특정 시간 동안 해제한다. 그리고 이 장소에 방문한 관람객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곳의 구석구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관객의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체득과 반응은 그들에게 생소한 요소가 아니다. 작가는 평소에 퍼포먼스, 현대무용 등의 무대와 협업해오곤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하게 계산된 무대 안에서 미세한 틈과 예기치 못한 변수가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다 유연하게 확장되기를 원하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또 다른 출발지점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작업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본다.

인터뷰

Q. 작업 설치 전에 본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여러 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장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전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위치한 서촌은 저희가 지난 5, 6 년간 자주 오가던 익숙하고 반가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얼굴의 윌링앤딜링은 공간 리서치와 현장 설치를 위해 2, 3 번 정도만 방문한지라 아직은 낯가림이 사라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건물이, 이제는 궁금증을 가지고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공간을 이해하는 일은 시간이 쌓여 그 공간이 어떤 식으로든 신체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단순히 공간 안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작품과 함께 드러나는 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Q. 로와정 작가의 작업에는 대부분 시간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작업에도 구조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작가가 특정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작품 구현 과정에서 작가가 직접 획득한 개인의 경험을 작품을 통해 보다 객관화 하여 전달하기 위한 로와정만의 방법이 있나요?

A.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dashed line>을 만들기 이전에, 윌링앤딜링 공간을 관찰하고 걷거나 만져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데, 공간을 이해해나가는 시간 이외에도 실제적인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선의 형태와 제목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즉 공간을 가로지르는 점선은 점차 그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늘려가며 연결되는 형태로, 시간의 속도와 순환적인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맥락화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아무래도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색채나 관념들이 다소 완화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에 관하여 '객관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편의상 이러한 과정을 '객관화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의 '객관화'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작품에서 어떤 방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작품 제목 <dashed line>은 '점선'이라는 시각적인 형식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이 이러한 용어적 의미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A. dashed line 은 도면이나 도형 등을 그릴 때 한 각도에서 바라볼 경우,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는 선(대상)입니다.

전시를 통해 비어있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전시가 이어지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연결되는 매개적 공간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점선의 형태를 이용하여 은유했습니다.

Q. 이번 전시에 설치하신 전체 구조물에 점선으로 색을 칠하셨는데요, 색칠한 부분의 간격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간격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지요?

A. 점선은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양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가정하에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율의 점선은 특정한 영역을 벗어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점차 길어집니다. 즉, 전시 공간으로부터 확장해나가는 점선의 한 방향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다른 방향의 점선은 출입구를 통해 밖을 향하게 되는데, 그 길이를 일정하게 늘여가던 각기 다른 두 방향의 점선은 결국 한 지점(계단의 한 부분)에서 동일한 길이로 만나게 됩니다.

이는, 길이를 늘여가는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길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어디든 시작점이 될 수도, 종결점이 될 수도 있는 순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Q. 벽면을 따라 진행하는 구조이면서 동시에 전체 물리적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순환적인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이 전시 전에 참여한 <2019 아트부산>에서의 신작 작업 중 안과 밖의 개념을 구조적으로 순환시키거나 병렬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dashed lines>은 그 연장선으로도 보이는데, 로와정의 초기 작업에서 작가 둘 간의 개인적 관계성이 좀 더 부각되었던 것에 비해 점차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방법으로 개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소재와 주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의식하여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A. 의식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로와정의 성향은 그렇게 주도면밀한 편이 아닙니다. 생활이든 작업이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이유로, 때때로 변화를 감지할 때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작업 초반의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였다면 지금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호기심, 문제의식이나 그와 관련한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안과 밖>은 저희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뚜렷한 경계와 경계의 모호함,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모하는 위치와 상태 등 많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본 작업은 현장성이 강해 보입니다.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혹은 관객이 경험하였으면 하는 것들에 대하여 얘기해주세요.

A. 이전의 작업과는 달리, 대략의 큰 틀만 세워놓고 공간에 들어와 작은 부분들까지 체크해가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형태와 디테일을 결정하고 설치한 작업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직 낯선 공간이기에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분들이 <dashed line>을 따라 선을 이어가며 면과 공간을 읽어내고,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순환을 살피는 등, 전체와 부분을 자세히 바라보며 새로운 장소와 공간에 위치한 윌링앤딜링이 조금이나마 익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였습니다.